

제주지역 가창유희요 고찰

양 영 자*

차례

- I. 머리말
- II. 조사 및 자료집 검토
- III. 제주지역 가창유희요의 유형과 형성배경
- IV. 제주지역 가창유희요의 전승양상
- V. 맺음말

I. 머리말

민요는 노래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부르기도 하지만, 노래 이외의 목적과 기능 때문에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실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리는 기능요와 노래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비기능요로 나눌 수 있다. 가창유희요는 실생활적인 기능보다는 노래 그 자체만을 즐기는 성격이 강하므로 흔히 비기능요로 분류되어 왔다.

가창유희요는 다양한 명칭과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가창유희요는 훈련을 쌓은 전문가에 의해 불린다 해서 '창민요',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의해 불린다 해서 '통속민요'라 칭하기도 하고, 놀이요의 성격을 갖는 민요와 한데 묶어 '잡요'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의 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류명이 모든 경우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필자마다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분류명을 가려 써 왔다. ‘가창유희요’라고 할 때는 노래를 통해 얻는 즐거움이 춤추기나 율놀이 등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노래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들도 가창유희요라고 이름하여 유희요의 범주에 넣어 다루고 있다.¹⁾

이 글은 지금까지 조사·연구된 제주지역 가창유희요를 정리하고 형성배경과 유형, 전승양상 등을 살피고자 한다. 제주지역 가창유희요의 특성이나 노래에 반영된 삶의 정서 등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필 기회를 갖겠다.

II. 조사 및 자료집 검토

제주는 척박한 자연환경과 사회·역사적 상황을 이기며 살아야 했던 탓에 노동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가창유희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 한가로이 노래를 즐길만한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가창유희요가 생성될 전승기반이 조성되지 못했다. 노동요가 갖는 질적·양적 가치에 우선권을 두다 보니, 사실상 민요 분류작업에서 가창유희요는 제외시켜 왔다. 따라서 제주지역 가창유희요는 노동요에 비해 조사·정리된 예도 적을뿐더러 연구대상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이제까지 제주지역 가창유희요가 채록된 자료들의 대강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진성기, 『남국의민요』, 제주민속연구소, 1958.

—앞서 발간했던 『오돌또기』에 제주도민요의 개관을 덧붙이고 서명을 달리해서 펴낸 자료집이다. 오돌또기, 이아용, 영주십경가, 봉지가, 산천초

1) 강동학,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229쪽.

목, 느영나영과 장기노래, 골패노래, 걸궁노래 등이 실려 있다. 자료집의 앞쪽에 김국배가 채보한 악보 11편을 실어놓음으로써 처음으로 음악적 채보를 시도하고 있다.

②김영삼, 『제주도민요집』, 중앙문화사, 1958.

—노동 기능별로 민요를 분류하고, 하위분류로 노래 제목을 붙이고 있다. 제목은 고정되어 불려지는 것은 그대로 취하고, 그 외의 것은 저자의 임의대로 붙였다. 민요의 조사지역이나 제보자·구연상황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으나, 몇몇 방언에 대해 주를 달아 놓아 사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돌또기와 이야흥이 채록되어 있고, 맨 앞장에 오돌또기의 악보가 실려 있다.

③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향토사학자가 자신이 채집한 민요 중에서 고유의 민속을 아끼고 민요를 연구하는 학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백여 편을 골라 편찬하였다. 가창유희요로는 산천초목, 봉지가, 오돌또기가 실려 있고, 김국배가 편곡한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의 악보로 수록되어 있다.

위의 ①·②·③은 제주민요수집 초기의 자료들로 노동요와 더불어 김국배가 가창유희요 몇 곡을 채보하여 정리해 놓은 정도이다.

④존리비, 『제주도민요컬렉션』, 스코틀랜드학연구소, 1964.

—1964년 영국인 존리비가 한국에 와서 녹음한 자료들로 제주민요는 30여곡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 성읍지역에서 전승되는 가창유희요가 주를 이루고 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60년대 당시의 제주민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민요의 전승과 변이를 살펴보는 데 유익하다.

⑤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일조각, 1965.

—제주도 일원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동서남북의 균형을 고려하여 골고루 수록하였다. 민요의 분류는 상위분류로서 노동요와 타령, 동요로 분류한 후, 노동요를 다시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각 노래 속에 나타나는 제재나 내용 중심으로 하위분류를 하고 있다. 가창유희요는 타령류에 포함되어 있다. 옛타령과 잡요 항목을 두고 옛타령에 오돌또기, 이야흥,

산천초목, 봉지가, 잡요에 잡요와 달거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뒷장 말미에는 노래에 대한 <색인>과 김국배가 채보한 12편의 악보가 실려 있는데, 김국배가 편곡한 오돌또기, 이야홍, 봉지가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⑥『한국의 민속음악: 제주도민요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제주도 전역에서 수집한 50여 편의 민요 중에서 녹음상태와 자료적 가치, 창자의 이동에 따라 1개 면에 3개 곡 정도를 선곡하여 220여 곡을 모아놓은, 제주민요의 음악적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집이다. 가장 유효요는 잡요로 분류되어 채록되었는데, 이보형의 채보로 관덕정앞 1편, 계화타령 2편, 길군악 1편, 너냥나냥 3편, 동풍가 5편, 봉지가 1편, 자진사랑가 1편, 산천초목 2편, 서우젯소리 8편, 영주십경가 1편, 오강산타령 1편, 오돌또기 9편, 용천검 1편, 이야홍 5편, 중타령 1편이 채보되어 있다.

⑦『한국구비문학대계 9-2,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설화·민요·무가 등 광범위한 자료를 집대성해 놓은 구비문학자료집인데, 자료는 읍면 단위로 정리되었다. 9-1은 북제주군편, 9-2는 제주시편, 9-3은 서귀포시·남제주군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구비문학대계9-1』에는 가장유효요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9-2』에 산천초목 2편, 한라산 1편, 너냥나냥 1편, 오돌또기 4편, 이야홍 4편이 실려 있고, 『한국구비문학대계9-3』에는 평노래 2편, 동풍가 1편, 질군악 1편, 사랑가 1편, 관덕정앞 1편, 계화타령 1편, 연병가 1편, 용천검 2편, 중타령 2편, 봉지가 1편, 오돌또기 7편, 오강산 타령 1편, 담바귀타령 1편, 장기노래 1편, 장타령 1편 등이 채록되었다.

⑧『제주도부락지 I』~『제주도부락지IV』,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91.

—『제주도부락지 I』~『제주도부락지IV』는 국어국문학과의 『국문학보』 제1~10집과 『해촌생활조사보고서』, 국어교육과의 『백록어문』 제1~7집의 자료를 한데 묶어놓은 자료집이다.

『제주도부락지(I)』에는 산천초목 1편이 있다. 『제주도부락지(IV)』에는 오돌또기 5편, 관덕정 앞 2편, 연병가 1편, 계화타령 1편, 사랑가 2편, 중타령 1편, 방화타령 1편, 아리시리딩딩 1편, 질거리 1편, 용천검 1편, 각설

이 타령 1편, 신세타령 1편, 이야흥 1편, 영주십경가 1편, 한강수타령 1편, 양산도 1편, 창부타령 1편, 장귀타령 1편이 채록되었다.

⑨『국문학보』 제11집~15집, 제주대 국문학과, 1992,1994,1995,1997,2001.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은 매해 마을별 학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얻은 자료들을 『국문학보』에 실고 있다. 『국문학보』 제11집에는 너영나영 1편, 양산도 2편, 오돌또기 1편, 창부타령 1편, 청춘가 1편, 꿩놀래 1편이, 『국문학보』제12집에는 너영나영 2편, 매화타령 1편, 양산도 2편, 잡가 1편, 창부타령 1편, 청춘가 1편이, 『국문학보』제14집에는 이야흥 1편, 청춘가 1편이, 『국문학보』제15집에는 양산도 1편, 청춘가 1편, 창부타령 1편, 오돌또기 1편, 창부가 1편, 양산도 1편, 너녕나녕 1편, 달타령 1편이 채록되어 있다.

⑩『백록어문』 제8집~17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91~2001.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들도 매해 마을별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백록어문』에 실고 있다. 『백록어문』11호에 창부타령 1편, 청춘가 1편, 『백록어문』14호에는 오돌또기 1편, 너영나영 1편, 뱃노래 1편이, 『백록어문』17호에는 창부타령 1편, 장구타령(*창부타령의 오기) 1편, 청춘가 1편, 박연폭포 1편이, 『백록어문』17호에 큰애기풀이 1편, 베틀가 1편, 노세 노세 젊어노세 1편 등이 실려 있다.

⑪『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2.

—문화방송은 전국의 민요를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녹음한 자료를 93장의 CD음반과 8권의 해설집으로 내놓았다. 이 음반에는 171곡의 제주민요가 선곡되어 수록되어 있고, 해설집에는 오돌또기 2편, 이야흥 1편, 너녕나녕 2편, 동풍가 2편, 봉지가 1편, 용천검 1편, 신목사타령 1편, 질군악 1편, 계화타령 1편, 산천초목 1편, 영변가 1편, 중타령 1편, 아리랑 1편, 꿩놀래 4편, 가마귀노래 1편, 선유가 1편 등이 채록되어 있는데, 이정란이 음악적 채보를 하였다.

⑫『우리고장 전래민요』, 남제주군, 1996.

⑬『제주의 향토민요』, 제주시, 2000.

⑭『아름다운 전통의 소리』, 북제주군, 2001.

—(사)제주문화예술연구센터(조영배)가 행정 용역을 받아 사설과 악곡을 채록·채보한 자료집들이다. 『우리고장 전래민요』에는 오돌또기, 이야홍타령, 느영나영, 봉지가, 용천검, 동풍가, 신목사타령, 질군악, 짐계화타령, 산천초목(오광산타령), 영변가, 중타령, 사랑가, 솔학타령 등이 실려 있다. 『제주의 향토민요』에는 오돌또기, 이야홍 타령, 느영나영, 자진사랑가, 세마치 사랑가, 계화타령, 산천초목, 신목사타령, 용천검, 동풍가, 봉지가, 질군악, 솔학타령, 중타령 등이 실려 있다.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에는 비교적 잘 전승되는 노래로 오돌또기, 이야홍, 느영나영이, 거의 조사되지 않는 노래로 봉지가, 산천초목, 용천검, 동풍가, 신목사타령, 계화타령, 중타령, 자진사랑가, 세마치사랑가, 솔학타령이 보고되어 있으나 조사에 대한 현장론적 서지사항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 행정 차원에서 전통문화와 민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⑮임석재 편저, 『한국구연민요 자료편』, 집문당, 1997.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 민속원, 2004.

—저자가 1960년대 조사한 자료를 CD음반과 함께 발간한 자료집이다. 제주민요는 모두 69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악보의 채보와 더불어 현대어 해석까지 곁들여 있다. 『한국구연민요 자료편』에는 제주오돌또기와 조천장타령이 채록되어 있다. 『한국구연민요자료집』에는 장타령 3편, 매화타령 2편, 오돌또기 1편, 오돌또기타령 2편, 질군악 2편, 봉지가 1편, 용천검 2편, 중타령 1편, 서우젯소리 2편, 창부타령 1편 등이 악보로 채보되어 있다. 이 노래들은 존리비 콜렉션과 더불어 가락의 변이와 고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주민요는 선학들의 노력에 의해 많은 양의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노동요가 갖는 질적·양적 가치에 우위를 두어 왔다. 제주지역은 노동요에 비해 가창유희요의 전승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적 풍토와 소리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창유희요에 대한 관심은 적은 실정이었다. 그 결과 그나마 남아있는 가창유희요의 채록마저 소홀

히 여기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며 실리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에는 가창유희요가 아예 채록되지 않았고, 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에도 가창유희요는 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민속을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농악·풍어제·민요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에는 경기도·강원도·충청도·호남좌도·호남우도·경상북도·경상남도민요와 더불어 일부의 제주민요가 실리면서도 오돌또기, 이아흥이 실려 있기도 하다.

민요 분류작업에서부터 가창유희요가 제외됨으로써 노동요에 비해 조사·정리된 예도 적을 뿐더러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김영돈을 비롯하여 그 후학들에 의해 노동요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민속학적 논의가 꽤 이루어졌으나, 제주지역 가창유희요에 대한 연구는 조영배의 부분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²⁾ 특히, 가창유희요는 음악적인 연행성이 강한 노래이므로 유희적 기능과 함께 음악적 고찰이 진전을 보일 때 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데, 가창유희요에 대한 음악적 연구는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노동요에 대한 음악적 연구가 꽤 진전되어 온 것과는 대조적이며, 몇 사람에게 의해 진전되어 온 음악적 분석들조차 서양악의 음계와 선율에 기초한 분석들이어서 전통음악으로서 제주 가창유희요의 특성을 밝히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듯하다. 이는 총체적인 제주민요의 모습을 확보하기 위해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다.

III. 제주지역 가창유희요의 유형과 형성배경

제주지역 가창유희요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역사, 사회·문화적 특성을 자양분으로 하여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에는 수십여 종의 가창유희요가 있다. 이 중에는 서우젯소리처럼 원

2)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통속민요 연구편』, 신아문화사, 1991.

래 굿판에서 불려지던 소리가 가창유희요화 한 경우도 있고, 육지에서 유입되어 제주 가창유희요로 변용되면서 생명력을 잇고 있는 것들도 있다.

제주 민요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김영돈은 제주지역의 가창유희요를 세 부류로 분류하였다.³⁾

- ①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가창유희요: 오돌또기, 이아흥, 너녕나녕, 서우젓소리 등
- ②표선면 성읍리에서만 전승되고 있는 가창유희요: 관덕정앞, 계화타령, 질군악, 사랑가, 용천검, 중타령 등
- ③성읍리에서 주로 부르나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가끔 불려지는 가창유희요: 동풍가, 봉지가, 산천초목, 오광산타령 등

위의 분류는 제주 가창유희요가 유독 성읍마을에서 상당수 채록되고 있어, 가창유희요 전승지역으로서 성읍마을이 매우 중요시 된 분류라 할 수 있다.

조영배는 다음과 같이 제주 가창유희요를 분류하였다.⁴⁾

- 민중적 통속민요: 오돌또기, 너녕나녕, 이아흥 타령
- 특정적 통속민요: 산천초목, 봉지가, 동풍가, 관덕정앞, 계화타령, 용천검, 중타령, 길군악, 사랑가

위의 분류는 개념상 다소 모호한 점이 있으나 제주 가창유희요의 분포 지역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정교하게 음악적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0여 종에 달하는 제주지역 가창유희요 중 이제까지 보고된 자료집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였던 것으로 짐작되는 노래들을 대상으로 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김영돈, 『한국의 민속음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김영돈·현용준, 『제주도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주도, 1986.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도, 2000.

4)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통속민요 연구편)』, 신아문화사, 1991.

<표1> 제주지역 가창유희요의 분포

| 종류 | 분포지역 |
|---------|------------------------------------|
| 오돌또기 | 제주, 애월, 한림, 대정, 안덕, 남원, 표선, 구좌, 조천 |
| 이야흥 | 제주, 대정, 구좌, 조천 |
| 너녕나녕 | 제주, 애월, 한경, 대정, 안덕, 남원, 표선, 조천 |
| 서우젓소리 | 조사된 거의 모든 지역 |
| 산천초목 | 제주, 표선, 성산, 조천 |
| 동풍가 | 제주, 표선, 대정, 조천 |
| 신목사타령 | 표선, 조천 |
| 붕지가 | 제주, 표선 |
| 계화타령 | 표선 |
| 질군악 | 표선 |
| 사랑가 | 표선 |
| 용천검 | 표선 |
| 증타령 | 표선 |
| 오광산타령 | 표선 |
| 영변가 | 표선, 조천 |
| 솔학타령 | 표선, 대정 |
| 매화타령 | 대정 |
| 담바귀타령 | 안덕, 조천 |
| 장기노래 | 안덕, 구좌 |
| 장타령 | 한림, 한림 |
| 방화타령 | 표선 |
| 신세타령 | 한림 |
| 장기노래 | 대정 |
| 골패노래 | 한경 |
| 걸궁노래 | 한경 |
| 아리리리 동동 | 조천 |
| 엽전소리 | 조천 |
| 옛아리랑 | 조천 |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가창유희요는 악곡에 따라 분포지역이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제주목의 관아가 있던 제주시 지역과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인 표선면 성읍지역, 대정현의 현청이 있었던 보성을 중심으로 한 대정지역, 육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았던 조천 관 등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조선 태종 16년 이래 약 오백년(1416~1914) 동안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의 1목 2현으로 나뉘어 통치되었는데, 제주목의 고을이었던 제주시, 대정현의 고을이었던 대정골, 정의현의 고을이었던 정의골과 제주목의 교통요지인 조천 등은 관변지역이거나 문화, 문물, 교통의 유입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제주의 가창유희요들은 옛 제주관이 있던 관변지역, 육지와 문물·문화 교류가 있었던 포구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가창유희요 중 오돌또기, 이야흥, 너녕나녕 등은 제주시를 비롯하여 제주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고, 동풍가, 산천초목, 신목사타령 등이 관변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특정지역인 성읍에서만 전승되고 있는 가창유희요들이 있다.

표선면 성읍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지 않고 있는 가창유희요들이 오늘날까지도 고스란히 전승되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다. 옛 관청이 있었던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중에서도 유독 정의현의 소재지였던 성읍에서만 가창유희요의 전승이 활발했던 것은 지리적 조건과 민요전승자들의 의식이 크게 작용했던 때문으로 이해된다. 성읍은 해안마을에서 8km 올라간 중산간에 위치한 마을이며, 주변은 수많은 오름들로 둘러싸여 있고, 약 오백년 동안 현청소재지였던 곳이다.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마을과 교역이나 교류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오랜 세월 동안 도읍지로서의 자긍심과 그에 대한 동경은 가창유희요의 수용과 전승을 활발하게 한 요인이 아닌가 한다.

조천읍 조천지역도 그 지역만이 갖는 가창유희요들이 상당수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천은 관청소재지들과는 달리 조선초부터 조천관이 있었던 지역으로 교통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였고, 제주와 육지를 잇는 관문으로서 문화 유입이나 교류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또 조천읍 일대는 평원지대로 방목이 성행해서 말총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예부터 망건이나 탕건 작업이 성행했다. 말의 산지인 제주에서는 도두·이호를 중심으로 갖모자 작업, 삼양 중심으로 양태 작업, 화북 중심으로 탕건 작업이 성행했다. 과거 조천에서는 여러 집에 망건청을 두어 망건을 걸었을 정도로 망건 작업이 성행했었다. 그래서 조천지역에서는 망건이나 탕건, 양태 작업에서 이

야흥, 오돌또기, 너녕나녕을 비롯한 가창유희요가 불러져 전승되어 왔다.

조천과 성읍의 민요를 비교해 볼 때, 성읍지역의 가창유희요는 정제되고 절제된 반면, 조천지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노래로 나타난다. 이는 지역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성읍은 과거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로서 오백년 역사를 지녔기에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가창유희요의 형태도 정제된 반면, 조천은 육지와의 문물 교류는 잦았지만 조천관으로 포춘을 이루었기에 그들의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의식이 노래 속에 투영되고 있음을 가창유희요의 분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⁵⁾

제주지역 가창유희요의 전승양상에서 주목할 만한 특이한 점이 있다. 제주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자취를 감춘 가창유희요들이 아직까지 잘 전승되고 있는 성읍지역에서 오돌또기, 이야흥, 너녕나녕들이 조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성읍지역의 촌부들에게 이 노래를 청하면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부르기를 꺼려하거나 아예 부를 수 없다고 손을 내젓는다.⁶⁾ 제주시의 소리꾼 김주산은 성읍사람은 원래 오돌또기를 몰랐으며, 조을선(중요무형문화재 제주민요 95호)이 자신의 언니인 소리꾼 김주옥에게 배워갔다고 주장하였다.⁷⁾ 이제까지 보고된 성읍민요에서 오돌또기를 부른 가창자는 하나같이 조을선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주민요 95호’로 성읍민요가 지정되면서, 조을선이 불렀던 땃들노래,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가 제주민요를 대표하는 실체가 되었다. 그 중 하나인 오돌또기는 제주의 가창유희요를 대표하는 노래이긴 하지만, 성읍민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성읍지역에서 다른 가창유희요들의 전승은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제주도 전역에서 너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가창유희요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옛 현청소재지로서의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청소재지로서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일반 서민들의 관변문화에 대한 동경은 점차

5) 한기홍, 「조천민요의 특이성」, 『민요론집』 제3호,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4, 387쪽.

6) 2005.3.20. 필자 현장조사.

7) 2005.4.7. 필자 현장조사.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것이다. 관변문화에 대한 동경에 의해 관변의식이 형성되고, 그것이 노래의 수용과 전승에 강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전승의 맥을 이어오게 했다. 지역 문화의 전승이 활발하다보니 자연히 외부의 노래를 수용하는 기회는 적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당시 조사자료집에도 한결같이 성읍지역이 가창유희요 우세지역으로 알려져 조사대상지로 선정되었던 것은 그만큼 노래판 형성과 그에 대한 문화적 전통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지역 가창유희요들의 전승집단은 기녀(妓女)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옛 관청의 소재지들은 관기들이 거주하였던 지역들인데, 가창유희요는 이 지역에 거주하던 기녀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 가창유희요 수집 초기의 제보자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 이웃에 사는 기녀한테서 배웠다고 증언하는 사례가 두루 나타난다.⁸⁾ 특히, 가창유희요가 많이 전승되고 있는 정의 고을에선 대개 중매혼인을 했는데, 부모가 정한 혼처와 불합할 경우 관기로 가는 풍습이 있다는 설화⁹⁾가 전해질 정도이다.

기녀들이 여흥으로 부른 가창유희요는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부르는 민요로 점차 정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녀들이 가창유희요를 배우고 익혀 애창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민간에 흘러들어 전파되면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기녀들은 주로 민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기녀집에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익힐 수 있었고, 차츰 소리를 좋아하는 아낙들 사이에 퍼졌나간 것으로 보인다. 기녀들은 가창유희요를 전승시킨 전승자이면서, 가창유희요를 민간에 전파시킨 중개자였다고 할 수 있다. 민요 전승자로서의 기녀는 자연적인 창자라기 보다는 전문적인 소리꾼들이어서 노래를 익혀서 특수한 연행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불렀다고 할 수 있다. 가창유희요가 비교적 기교가 발달해 있고 선율이 풍부하며 사설 역시 정제되어 있는 것은 노래의 목적과 구연상황, 노래판의 성격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8) 김영돈,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도, 2000, 145쪽.

9)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가창유희요는 일상생활 속으로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허벅장단에 맞춰 소리를 하게 되고, 흥이 나면 즉흥적인 춤이 이뤄지기도 한다. 명절날이나 동네의 잔칫날이면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허벅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흥을 즐겼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선소리를 하면 공동으로 흥겹게 후렴을 받아가며 소리판이 무르익어 간다.

그런데, 민요는 성격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시대나 생활 여건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기능과 더불어 전승되던 민요가 전승과정에서 고정된 기능을 이탈하여 기능과 사설의 변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기녀 등 특수계층에서 불리던 노래들이 노동현장까지 유입되어 불리는 예를 더러 찾을 수 있다. 조천 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가창유희요들은 망건 짚는 노동에서 불렸고, 성읍에서 전승되는 가창유희요 가운데 용천점은 성읍과 이웃마을에서 받을 때면서도 흥겹게 불렀다. 즉, 제주지역 가창유희요는 놀 때도 불려지고, 노동요로도 채용되어 불려지면서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

가창유희요가 여흥과 노동, 집단 활동 등에서 다양하게 불리면서 점차 전도적으로 전파되고 제주도적으로 변모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창자의 의도에 의해 같은 노래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사설과 가락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가창유희요의 수용도 그 지역 사람들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IV. 제주지역 가창유희요의 전승양상

1.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어 온 가창유희요

가. 오돌또기

오돌또기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가창유희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돌또기 사설에는 한라산 허리, 서귀포 해녀, 산포조어, 성산일출, 사봉낙조 등 제주의 아름다운 승경이 잇따라 등장한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치와 생활

상이 후렴을 반복하면서 차례차례 노래된다. 소리꾼에 따라 가락이나 사설도 조금씩 다른데, 좀더 느리고 유장한 곡이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여흥적인 상황에서 불려지나, 조천지역에서는 망건이나 탕건 짜는 일을 할 때도 불려졌다. 가창영역이 노동의 연행상황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오돌또기에는 재미있는 전설¹⁰⁾이 뒤따르고 있다.

옛날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김복수라는 총각이 있었다.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으나 착하고 글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주위에서 권하니 과거길에 오르게 된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폭풍이 일어 일행 모두는 희생당하고, 자신만 안남(安南) 땅에 표류하게 된다. 안남 땅에서 외롭게 지내던 그는 유구(琉球)에서 표류해온 임춘영이라는 처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부부의 연을 맺어 3남 3녀의 자식까지 얻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온 사신에게 같이 데려가 주기를 간청하여 처자식을 두고 배에 몸을 싣는다. 일본에서 춘향의 오라버니 임춘영을 만나 유구로 돌아가기 위한 항해를 하는 도중에 고향땅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한라산을 보게 된다. 김복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식수를 준비하고 오겠다며 배에서 내려 제주땅을 밟고 그의 어머니를 만난다. 임춘영 일행은 돌아오지 않는 김복수를 두고 떠나버린다. 그날부터 김복수는 아내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달 밝은 밤이면 바닷가에 나가 오돌또기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구슬프고 애절하여 노래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급기야 전도에 퍼져나갔다.

오돌또기 사설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슬하게 남아 있다. '오돌또기'란 말뜻에서부터 각 사설에 숨겨진 뜻은 구전되는 설화만큼이나 신비롭기만 하다.

오돌또기 저기 춘양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10)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1959.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한라산 중허리에 시러미 익은송 만송
서귀포 해녀가 바당에 든송 만송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성산포 앞바당에 송어가 똬송 만송
청출왓테 뭇생이 뛰고야 노는구나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말을 타고서 꽃밭에 갔더니
말발작마다 향내만 나는구나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산엔 가면은 목동의 노래요
바당에 가면은 잠수의 노래로다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제주야 한라산에 고사리맛도 좋고 좋고
산지야 바당에 뱃고동 소리도 좋고 좋다
등그데당실 등그데당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2005. 4. 8. 양영자 채록. 제주시 아라동 김주산(여·66세)소리)

이 노래는 제주에서 형성되어 육지로 전파되었다는 설¹¹⁾과 경기지방의

11) 성경린·장사훈, 『조선의 민요』, 국제음악문화사, 1949.

민요가 제주로 흘러들어와 제주의 오돌또기가 형성되었다는 설¹²⁾이 있는데, 대체로 후자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돌또기는 신재효본 '홍부가'나 '가루지기타령'에 비슷한 사설의 삽입요가 등장하며, 경기민요 '오돌독'이나 강릉민요 '오독데기'·'오독도기' 등 비슷한 명칭의 민요가 전국에서 산견되고 있어 육지의 민요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돌또기의 첫머리 사설과 홍부거나 가루지기타령의 사설이 비슷하며, 오돌또기의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과 비슷한 후렴이 홍부가(등등등등 실실실), 가루지기타령(등등등실)에도 나타난다. 오돌또기 사설에 드러나는 '연자버리고'와 비슷한 '연저발이고(홍부가)', '연저버리고(가루지기타령)' 같은 유사 어휘도 나타난다. 그런데, 경기 오돌독은 민간에서 채록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소리꾼의 노래로 탈바꿈한 것으로 보이며, 강릉 오독데기는 김매면서 불려져 사설과 가락이 제주 오돌또기와는 전혀 다른 노동요이다. 다만, 오독데기가 불려지는 가운데 '담송가' 가락이 끼어드는데, 이 담송가가 제주도의 오돌또기와 사설과 가락이 닮아 있다.¹³⁾

이들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오돌또기는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널리 애창되던 민요인데, 이 민요가 여러 장르에 삽입되어 불려졌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육지로부터 오돌또기를 받아들인 제주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밀착된 데서 제재를 찾아 노래에 실어 부르게 되었고, 결국 사설이 제주적인 변용을 일으키며 제주의 풍광을 노래하는 영주십경이 오돌또기 사설에 등장하기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적 요인 때문에 외부의 문화가 들어오기가 어려웠고 한번 들어온 문화가 쉽게 사라질 줄도 몰랐다. 전국에서 유행가처럼 불리던 노래가 조선시대에 제주로 흘러 들어와 제주적으로 변모·정착되면서 제주 고유의 민요로 탈바꿈하여 제주도의 향취를 가득 담게 된 것으로 보인다.

12) 나운영, 「제주도 민요의 작곡학적 연구(1)」, 『연세논총』제9집, 연세대, 1972.

13) 김영돈·현용준, 「제주도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주도, 1986.

나. 너녕나녕

제주도 전역에서 즐겨 불리는 노래이다. 초기에는 제주시, 성읍, 대정 등 옛 관청이 있던 지역에서 불려진 듯하나, 오늘날은 비교적 제주 전역에 퍼져 있다.

너녕 나녕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쌍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입이 그려 우는다
 너녕 나녕 두리둥실 너녕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쌍사랑이로구나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 좋고요
 사람은 늙으면 무엇을 허나
 너녕 나녕 두리둥실 너녕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쌍사랑이로구나

앞두침에 살아도 내가 그런줄 몰랐더니
 열두가지 요본털이 뻗골이 다늑나
 너녕 나녕 두리둥실 놀고요
 낮에낮에나 밤에밤에나 쌍사랑이로구나

(2005. 2. 21. 양영자 채록. 제주시 건입동 김태매(여·83세) 소리)

이 노래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너랑 나랑'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제주어 '느영나영', '느녕나녕', '너냥나냥'이라고도 한다. 가락이 단순하면서도 흥겨운데 사설에 비해 후렴구는 더욱 역동적이다. 후렴구는 '쌍사랑이로구나' 대신에 '상사랑이로구나', '참사랑이로구나' 등 다양하게 불린다. 오돌또기처럼 놀이판에서뿐만 아니라 망건 짚는 일을 하면서도 불려졌다.

다. 이야홍

제주도의 대표적인 가창유희요로 오돌또기처럼 허벅장단에 맞춰 불리며, 제주 전역에 널리 전승되고 있다. 곡명은 사설의 여음인 '이야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야옹', '이야홍타령' 등으로도 불린다. 제주시, 조천, 대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고, 동김녕, 종달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성읍지역에서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이야홍 소리에
정떨어졌구나 이야홍
좋기도 좋구나 이야홍
야아홍그렇고말구요
야아홍 이야홍 다 굴을말이나

한라산 산상봉
높고도 높은봉 이야홍
백록담이라 이야홍
야아홍 그렇고말구요
야아홍 이야홍 다 굴을말이나

고량부 삼성에 나오신 그 곳은
이야홍 삼성혈이라
야아홍 이야홍 그렇고말구요
야아홍 이야홍 다 굴을말이나

앞강에 뜬배는
임 실러놓구요
이야홍 야아홍 돌마중가노라
이야홍 야아홍 그렇고말구요
야아홍 이야홍 다 굴을말이나

절부암 부서지는
 절소리만 들어도 이야홍
 처량도 하구낭
 이야홍 야아홍 그렁고말구요
 야아홍 이야홍 다 굴을말이나

(2005. 2. 21. 양영자 채록. 제주시 건입동 김태매(여·83세)소리)

대개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제주의 자연이 자주 등장하는데, 사설의 즉흥성이 강하다. 조천지역에서는 망건 걷는 노동에서 이야홍 가락에 망건노래의 사설을 엮어 부르기도 한다. 이 노래는 가락이 매우 흥겨운 게 특징인데, 원래는 느리고 유장하게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야홍을 부를 줄 아는 고령의 소리꾼들에 의하면, 현재의 가락은 매우 빨라진 것이고 자신들의 어머니 세대가 부를 당시는 매우 느린 가락으로 불렀다고 증언하고 있다.

라. 서우젯소리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노래로, ‘허우젯소리’, ‘허와젯소리’, ‘시우젯소리’, ‘심방소리’, ‘서낭소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진다. 원래는 무속제의인 ‘석살림굿’에서 심방이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할 때 부르는 무가(巫歌)인데, 노래가 갖고 있는 주술·종교적 기능 때문에 민간에 들어와 민요화 한 노래이다. 노래의 선율이 유연하고 구성져서, 놀이판에서 장단에 맞춰 춤추고 놀 때 남녀불문하고 불려진다. 굿판에서 불리던 노래가 서민들이 춤추며 흥겹게 노는 유희적인 놀이판, 김매는 작업, 불미작업, 멸치후리는 일 등 집단적이고 힘든 노동의 현장에서도 차용되어 불려지고 있다.

어양 어양 어기로구나
 아~아양 어양 어허요
 한라영산 놀던 산신
 아~아양 어양 어허요

태역장군 물장오리

아~아양 어양 어허요

도놀개여 서놀개여 놀던 산신

아~아양 어양 어허요

강포수여 허포수여 어리목에 놀던 산신

아~아양 어양 어허요

서천구역 이른요덥

아~아양 어양 어허요

한라영산 장군선앙

아~아양 어양 어허요

선을꽃은 애기씨선앙

아~아양 어양 어허요

재미꽃은 도령선앙

아~아양 어양 어허요

대정꽃은 영감선앙

아~아양 어양 어허요

높이든건 일월이놀고

아~아양 어양 어허요

뽕이뜬건 선앙이 논다

아~아양 어양 어허요

(앞단노라. 야, 이젠 우리 줌수털 만선 실런 작업 다해시난 이젠, 서우제 불르명 놀고 집이 가자.)

어허양 어허양 어허두여라 우리 줌수털 놀고가자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여

천왕님아 유향님아 우리줌수털 가는디랑 앞발뺏춰서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야

일본은들어 주년국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하~양 어허~양 어허야

물을 들면은 강변에 놀고 물은 싸면은 수중에 놀고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야

동이와당 가지면은 청요왕이 놀건도마는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용

서이와당 가지면은 흑요왕이 놀건마는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이물에서 놀던 사공아 고물에서 놀던 사공아

아하하~양 어허~양 어허요

허릿대밑데 화정아야 물때 점점 늦어나간다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용

우리즘수덜 만선실령 어서어서 집으로 가네

아하아~양 어허~양 어허요

(2005. 2. 21. 양영자 채록. 제주시 건입동 김태매(여·83세)소리)

제주사람들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무속제의와 놀이·노동이 별개가 아니었다. 서우젯소리는 원래 무속제의인 석살림에서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불리던 무가였다. 굿판의 소리가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와 현재는 노래판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불리는 가창유희요로 자리잡았다. 서우젯소리는 제주도민의 생활전반에 걸쳐서 가창되면서 전승이 이루어지고 왔다. 멜후리기, 김매기, 물질작업, 불미작업 등에서 집단 작업의 능률을 높여 주고 강한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구실을 하기 위해 다양하게 불려진 다기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노래이다. 그러므로 서우젯소리 사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창자의 의도에 따라 변별적 자질을 갖는 각편으로 개별화할 수 있고, 구연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소리판에서 불리는 '산신서우제', 영감놀이에서 불리는 '영감서우제', 해녀 물질 후 노 젓고 오면서 배 위에서 테왁을 두드리며 놀 때 불리는 '해녀서우제', 멜후리기 작업에서 불리는 '멜후리기서우제' 등이다. 소리판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는 서우젯소리가 단골로 등장하는데, 이때는 '즈진서우제' 를 불러야 신이 난다.

제주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의 강도가 높았으므로 가창유희요에 대한 수용과 전승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마을의 대소사, 잔치, 농한기, 노동의 휴식 시간 등에서 즉흥적인 노래판을 형성하여 놀았다. 특히 마을의 대소사나 잔치에는 허벅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밤을 밝혀 놀았다.

‘서우젓소리’는 어깨춤이 절로 나는 매우 흥겨운 가락의 노래이므로 노래판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였는데, ‘서우젓소리’가 시작되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함께 노래한다. 요즘 들어 제주의 소리판에서 가장 우세한 노래 역시 서우젓소리이다.

서우젓소리는 전도적으로 가장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굿판이나 노래판뿐만 아니라 다기능적 성격을 갖고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도 전승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까지 민중 속에서 가장 활발한 전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노래라 할 만하다.

2 옛 관변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가창유희요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가창유희요들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옛 관아가 있었던 지역과 육지와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많았던 화북포나 조천관 등 관변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노래들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이들 지역에는 관기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가창유희요는 이들에 의해 민간에 널리 전파되면서 불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변지역 중에서도 제주시와 보성에 비교하여 성읍지역에서 유달리 가창유희요가 많이 전승되고 있어 제주가창유희요의 보고라 할 만하다. 원래 성산면 고성에 있던 정의현청이 왜구의 잦은 침범을 피해 세종 5년 표선면 성읍으로 옮겨지면서, 성읍은 1914년 정의현이 제주군에 흡수되기까지 오백여년 동안 산남지역 문물의 중심지였다. 게다가 산간마을이라는 지리적 요건이 가창유희요의 보존이라는 저장고의 구실과 함께 민요의 전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물론, 성읍에서 전승되는 가창유희요들이 성읍지역에서만 불렸던 것은 아니고 제주목이나 대정현에서도 불렸을 것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소리꾼에 의해서만 전승되거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성읍지역의 맷돌노래,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95호 제주민요’로 지정되면서 성읍 가창유희요가 제주 가창유희요의 대표격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 산천초목

옛 관아가 있던 제주시, 성읍, 조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노래다. 다른 민요를 부를 때는 허벅 장단을 치지만, 이 노래는 선율선이 복잡하고 비교적 장식음이 많아 장단을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부른다. 후렴에 ‘받읍네다 받읍네다’를 넣어 부르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제주시지역의 소리꾼들은 넣어서 부르는 경향이 있고, 성읍의 소리꾼들은 빼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산천초목 속님이 난데
 구경가기가 열화 반갑도다
 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
 입은 툇다다 열화 입에 물어
 산에 올라 들구경가니
 천하일색은 열화 내로구나
 날 오라하네 날 오렝허네
 산골처녀가 열화 날 오렝호는다
 돌아오는 반돌처럼 드리 주머니 주워놓고
 만수무강 글자를 사겨
 수명당사 끈을 돌아
 정든임 오시거든 열화 재와나롭시다

(2005. 3. 20. 양영자 채록. 표선면 성읍리 현순옥(여·71세)소리)

이 노래는 서울·경기지역과 서도지방에서 불리는 잡가인 산타령계 음악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천초목 속님이 난디 귀경가기 열화 반가와라’는 앞부분 사설이 경기·서도지방의 입창 중 ‘놀랑’과 잡가 ‘화초 사거리’의 첫머리와 같고, 신재효본 ‘가루지기타령’이나 ‘홍보가’에 나오는 잡가의 사설과도 비슷하다. 육지의 민요가 제주에 흘러들어와 오늘날까지 변이되면서 전승된 노래로 볼 수 있다.¹⁴⁾

나. 신목사타령

제주시 한복판에 있는 관덕정은 세종 30년(1448) 辛淑晴 목사가 연무장으로 건립한 정자로 보물 제3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노래는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을 때 기녀들이 인사드리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로 여겨진다. 여러 명이 불렀으므로 여흥적이고 떠들썩한 놀이판에서 불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관청이 있었던 지역, 그 중에서도 제주시 지역의 관기들에 의해 많이 불렀던 민요였을 것이나, 지금은 주로 성읍과 제주지역의 소리꾼들에게서 전승되고 있다.

관덕정 문앞에 형리방 걸음을 걸어라
아기작 쿵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러 나간다
계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다
아기작 쿵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러 나간다

산지포 바당에 갈농선 떴고
김녕포 바당에는 에리화 조기선 떴구나
계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다
아기작 쿵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러 나간다

돈 하고 돈 한 건 산지야 작별
악하고 모진 것은 에리화 굼기만 지는다
계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다
아기작 쿵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러 나간다

돌다리 앓인새 참매울까 감시
수청에 곱은뽕은 에리화 포수울까 감시
계화자 좋을소 대명당 허리로다
아기작 쿵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러 나간다

(2005. 4. 8. 양영자 채록. 제주시 아라동 김주산(여·66세)소리)

14)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신목사타령은 노래의 첫 사설을 따서 ‘관덕정앞’이라고도 하는데, 관덕정 묘사는 처음에만 나오고 다음 사설부터는 소리꾼이 제 흥에 맞게 사설을 붙여나간다. 가락은 경기도의 ‘길타령’, ‘지화자타령’과 유사한데¹⁵⁾ 사설이 제주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후렴의 ‘신목사 후리러 나간다’에서 ‘후리러’ 대신에 ‘홀리레’, ‘허리로’ 등으로도 불리는데, 모두 기녀의 행동을 나타낸 말이다. 기녀들이 신목사를 마중 나가면서 아장거리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 봉지가

관청이 있던 옛 관변지역에서 불렸으나 오늘날은 주로 성읍에서 전승되고 있는 노래다.

봉지가 진다 봉지가 진다
 봄철 남에서 봉지가 진다
 에헤 리이리 리이리 리이리 야하야
 에헤 리이리 리이리 리이리 야하야
 야하 에~ 에헤~가 얼씨구나

잉어가 논다 잉어가 논다
 청포장 속에서 잉어가 논다
 에헤 리이리 리이리 리이리 야하야
 에헤 리이리 리이리 리이리 야하야
 야하 앵~ 에헤~가 얼씨구나

앞집이 사당은 인물이 절색
 뒷집이 사당은 과부가 명창
 에헤 리이리 리이리 리이리 야하야
 에헤 리이리 리이리 리이리 야하야
 야하 앵~ 에헤~가 얼씨구나

15) 『한국의 민속음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줌진 삼은 밀려나 놓고
 흙은 삼은 땡겨나 놓아
 에헤 리이리 리이리 리이리 야하야
 에헤 리이리 리이리 리이리 야하야
 야하 앵~ 헤에가 얼씨구나

(2005. 3. 20. 양영자 채록. 표선면 성읍리 이미생(여·74세)소리)

‘봉지가 진다’의 ‘봉지’란 꽃을 가리키는 제주어다. 이 노래는 꽃이 조용히 지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관조하고 있다. 또, ‘잉어가 논다’는 물레와 관련된 사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여자들이 물레를 돌리면서 불렀던 노래의 사설이 삽입되었거나, 이 노래 자체가 물레 작업에서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에헤 리이리 리이리 리이리 야하야’ 부분에서는 음이 특이하게 가성 처리되어 피리소리를 연상하게 한다. 사설의 첫머리는 경기·서도 입창 ‘놀랑’과 남도잡가 ‘화초사거리’의 첫 사설과 같고, 신재효본 ‘가루지기 타령’과 ‘홍보가’에 삽입된 거사당 소리에도 비슷한 사설이 있으며, 육지 민요 중 동일명의 노래들이 있다.

라. 용천검

이 노래는 ‘남사당’, ‘사당소리’라고도 하는데, 제목에서부터 육지의 사당패 음악과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찾든 칼을 쭉뚫고 보난
 난데 없는 용천의 검은 검이라
 앵에라 데야 앵에라 텅에라
 상사어로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에
 꽃이나 진다고 설어를 말아
 앵에라 데야 앵에라 텅에라
 상사어로구나

맹년 이철 춘삼월 나면
다시나 피면은 꽃이로구나
앵에라 데야 앵에라 텅에라
상사어로구나

천하일색 양귀비라도
늘어나지면은 허사로구나
앵에라 데야 앵에라 텅에라
상사어로구나

(2005. 4. 8. 양영자 채록. 제주시 아라동 김주산(여·66세)소리)

이 노래는 진도 등지에서도 발견되는데, 조선시대 후기 전국을 떠돌던 사당패들이 부르며 다니던 노래로 추측된다. 가락이 매우 역동적이고 남성적이다. 성읍의 인근마을인 남원 일대, 성산 일부 지역에서는 김매는 소리로도 불렀다. 제주시지역에서는 후렴을 ‘상사어로구나’라고 하는데, 성읍 지역에서는 ‘방애 방애로다’라고 부른다.

마. 동풍가

제주시, 조천, 성읍, 대정 등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불리던 노래다. 서도 민요인 ‘난봉가’와 사설이나 후렴, 가락이 비슷하다. 육지 지방에 ‘실실동풍가’, ‘슬슬동풍에’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노래가 유입되어 제주화한 형태의 노래로 볼 수 있다.

실실 동풍에
곳인비 주리줄줄 오는데
시월아 연풍에
임소식만 나노라
에헿 에헤잉 에헤~요
아랄마 디동둥
내사랑만 나노라

장산꽃 마루에
북소리 콧광콧광 나는데
시월아 연풍에
임소식만 나노라
에헿 에헤잉 에헤~요
아랄마 디동동
내사랑만 나노라

앵도남 아래
빙아리 한쌍 놓고
총각이 낭군님이
밥반찬만 돼노라
에헿 에헤잉 에헤~요
아랄마 디동동
내사랑만 하노라

너도 총각 나도 총각
휘양머리 마주잡고
입맞추는 총각
에헿 에헤잉 에헤~요
아랄마 디동동
내사랑만 나노라

(2005. 3. 20. 양영자 채록. 표선면 성읍리 이미생(여·74세)소리)

내용은 대개 사랑·연정을 노래하는데, 다소 향락적인 내용의 사설이
이어지기도 한다.

바. 길군악

원님이 행차할 때 부르면서 오가던 노래로, 길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
미인 ‘길군악’이다.

아하 아하 헤~나니나노 헤헤이요 요나노나
에헤헤~야 에기나 노나니라

가면은 가고 말면은 말지~ 요
초신 신고 에헤에야 씨집을 가나
아하 아하 헤~나니나노 헤헤이요
요나노나 에헤헤~야 에기나 노나니라

말을 타고 꽃밭데 드니~ 요
발자국마다 에헤헤야 향내가 난다
아하 아하 헤~나니나노 헤헤이요
요나노나 에헤헤~야 에기나 노나니라

너는 어떤 계집이아이로 헤이요
장부간장 헤에에야 다녹여가나
아하 아아 헤~나니나노 헤헤이요
요나노나 에헤헤~야 에기나 노나니라

돌아오르는 반들처럼 헤이요
드리 주머니 헤헤헤~야 주워나놓고
아하 아하 헤~나니나노 헤헤이요
요나노나 에헤헤~야 에기나 노나니라

청사초롱 불밝혀놓고 헤이요
춘양방으로 헤헤헤~야 밤소일간다
아하 아하 헤~나니나노 헤헤이요
요나노나 에헤헤~야 에기나 노나니라

(2005. 3. 20. 양영자 채록. 표선면 성읍리 이창순(여·70세)소리)

성읍에서는 원님이 정소암 화전놀이를 갈 때 불렀다고 한다. 십이기가 '길
군약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농업노동요 '질꼬냉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
된다. 현재 성읍에서만 전승되는 노래로 사랑과 신세한탄을 노래하고 있다.

사. 계화타령

제주시, 성읍 등지에서 불리는 노래로, ‘환계타령’, ‘황계타령’, ‘김계화타령’이라고도 한다.

널랑 죽건 서울이 함경도 인경이나 뵈고
날랑 죽건 매화가 실강산 뵈노라
옛따 요년 돈받아라 계화는 삼경에 돌고서 짐계화 내돈만 받아라

십리 화방에 봄나부 돌돌 소소리 광풍에 땡그리진 돌돌
엄동 설한에 매화가 문풍지만 떠는다
옛따 요년 돈받아라 계화는 삼경에 돌고서 짐계화 내돈만 받아라

정든 서방님 웨독담 골목에서 아리 단돌이만 만나서
육신스대 아이고 바리바리 발발 뜨는다
옛따 요년 돈받아라 계화는 삼경에 돌고서 짐계화 내돈만 받아라

널랑 죽건 고기닥 고기닥 장독이나 뵈고
날랑 죽건 매화가 씨암톡 뵈거라
옛따 요년 돈받아라 계화는 삼경에 돌고서 짐계화 내돈만 받아라

널랑 낱건 백록담 선녀로 하강을 하고
날랑 낱건 한라산 나뭇꾼이 뵈여라
옛따 요년 돈받아라 계화는 삼경에 돌고서 짐계화 내돈만 받아라

(2005. 3. 20. 양영자 채록. 표선면 성읍리 이창순(여·70세)소리)

기생들의 신세한탄과 사랑, 소망이 노래되고 있다. 현재는 불리지 않고 있는 경상도의 ‘계화타령’과 가락과 사설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성읍의 계화타령은 진도 설재천 창과 같은 매화타령이 성읍에 전파되어 지역화 및 변화가 이루어진 소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 현지 가창자들은 계화타령의 유래에 대해 질문하면 사설 중에 나오는 짐계화는 김계화로 보고 과거 이 지방 출신 기생 김계화와 관련된 소리, 즉 ‘짐계화타령’이라고 하나, 이 소리는 매화타령이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사

설이 와전되면서 곡해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 주장¹⁶⁾도 있다.

아. 중타령

무척 흥겨운 가락의 노래로 주로 성읍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중놈의 굴갓에 수리수천냥이 가 이야도 심중만 탄다
에헤에용 예야 에헤에용 예야
요리저리나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중놈의 한삼에 양이 양닷돈이 가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에헤에용 예야 에헤에용 예야
요리저리나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중놈의 장삼에 수리수천냥이 가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에헤에용 예야 에헤에용 예야
요리저리나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중놈의 연줄에 수리수천냥이 가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에헤에용 예야 에헤에용 예야
요리저리나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중놈의 목탁에 양이양닷돈이 가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에헤에용 예야 에헤에용 예야
요리저리나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서마포 한자에 수리수천냥이 가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에헤용 예야 에헤용 예야
요리저리나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물명주 한자에 양이 양닷돈이 가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16) 손인애, 「향토민요 매화타령 연구」, 한국민요학회 제16차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6, 146쪽.

에헤에용 예야 에헤에용 예야

요리저리나 하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2005. 3. 20. 양영자 채록. 표선면 성읍리 이창순(여·70세)소리)

증을 사랑하는 처녀가 증에게 필요한 옷과 용품이 아무리 비싸도 모두 담당하고 싶은 애타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가락에 증에게 소용되는 물건들인 굴갓·설명주·서마포·가사·장삼·염줄·목탁 등을 차례로 실어 노래하는데, 소리꾼의 의도에 따라 더 첨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 역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자. 사랑가(늦인 사랑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 '사랑가'로 지칭되고 있다. 현재 성읍지역에는 '늦인 사랑가'와 '즈진 사랑가' 두 종류의 사랑가가 불려지고 있는데, 이 노래는 '늦인사랑가'이다.

사랑사랑 내놀던 사랑 연지복판에 똥빠진 사랑
에헤야 에이요로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가

간지 간지 벨장귀 속에 뚝뚝고 보니 만날 뽕자
에헤야 에이요로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가

연반물 차매에 등대남 머리 고개나 들러라 곤땀시 보자
에헤야 에이요로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가

오라고 헌데는 밤이나 가고 동네야 술집이 해낮이 간다
에헤야 에이요로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가

간지간지 벨간지 속에 뚝뚝고 보니 만날 뽕자
에헤야 에히요로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가

건곤이 불러라 월장가 하니 적막강산이 금백년이라
에헤야 에히요로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가

아침에 우는샘 배고팍 울고 저녁에 우는샘 임그렁 운다
에헤야 에히요로 설마 두리둥둥 내사랑가

(2005. 3. 20. 양영자 채록. 표선면 성읍리 현순옥(여·71세)소리)

차. 삼마둥둥 사랑가(좃인 사랑가)

삼마둥둥 사랑가는 좃인 사랑가(좃은 사랑가)이다.

삼마 둥둥 내사랑가

노들 강변 비들기 한쌍
푸린콩 한방울 몰어다놓고
삼마 둥둥 내사랑가

암놈이 몰어서 숫놈을 주고
숫놈 몰어서 암놈을 준다
삼마 둥둥 내사랑가

암놈 숫놈 어르는 소리
늙은 과부는 기동만 돈다
삼마 둥둥 내사랑가

젊은 과부는 반포짐만 싸고
처녀총각이 달맞이 간다
삼마 둥둥 내사랑가

(2005. 3. 20. 양영자 채록. 표선면 성읍리 이창순(여·70세)소리)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성읍지역 소리꾼들 사이에서는 '삼마둥둥 사랑가'를 제대로 부르려면 네 고비를 꺾어서 불러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창자들은 세 고비로 부르다가 네 고비로 부르다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네 고비가 안 되면 소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카. 영변가

성읍과 조천에서 발굴되는 노래로 황해도 지방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서도소리 '영변가'와 가락과 사설이 유사한데, 성읍의 영변가는 좀더 빠르고 단순화 하였다.

영변에 약산이 등대로구나
에야 에야 에~야
내모대 평완 어히요로
너 잘있거라 나도 멩년
양이양춘에 가잘이라도
또다시 상봉허리라

(2005. 3. 20. 양영자 채록. 표선면 성읍리 현순옥(여·71세)소리)

타. 술학타령

화투놀이를 소재로 하여 달거리 형식으로 불린다. 화투놀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전승이 적극적인 편은 아니다.

술학이라지 술학이라지
내가 무삼년이 나서 술학이라나
정월에 피어서 술학이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매화라지 매화라지
내가 무삼년에 매화라더나
이월에 피어서 매화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사꾸라라지 사꾸라라지
내가 무삼년에 사꾸라더냐
삼월에 피어서 사꾸라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흑사리라지 흑사리라지
내가 무삼년에 흑사리라더냐
사월에 피어서 흑사리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난초라라지 난초라라지
내가 무삼년에 난초라더냐
오월에 피어서 난초라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목단이라지 목단이라지
내가 무삼년에 목단이라더냐
유월에 피어서 목단이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홍사리라지 홍사리라지
내가 무삼년에 홍사리라냐
칠월에 피어서 홍사리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공산이라지 공산이라지
내가 무삼년에 공산이더냐

팔월에 피어서 공산이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국화라라지 국화라지
내가 무삼년에 국화라더나
구월에 피어서 국화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풍록이라지 풍록이라지
내가 무삼년에 풍록이라나
시월에 피어서 풍록이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오동이라지 오동이라지
내가 무삼년에 오동이라나
동지덜에 피어서 오동이라지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비라고허지 비라고허지
내가 무삼년에 비라고 허나
선돌에 피어서 비라고 허네
어기여차 뒤여 닥이 닷감는 소리
장부의 간장만 다 녹여간다

(2005. 3. 20. 양영자 채록. 표선면 성읍리 현순옥(여·71세)소리)

제주지역 가창유희요의 사설들은 남녀간의 사랑, 제주의 경승, 유희 등 인간 삶의 전반에 다양하게 걸쳐 있다. 가창유희요의 사설들은 비교적 정제된 편이어서, 현상적인 사설만 보고도 대충 어떤 노래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돌또기의 사설이 용천검이나 질군악에 나타나기도 하고,

너녕나녕의 사설이 이야홍이나 산천초목에 끼어들기도 하는 등 사설의 넘나름이 자주 일어난다. 전래될 당시의 고정적 유형의 사설이 여러 구연상황에서 불리면서 사설의 유장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개 고정적 유형의 사설들은 옛 시구나 고사, 역사적 사건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창유희요의 향유층이 비교적 넓었음을 의미한다.

제주지역 가창유희요는 사설과 후렴이 대응되며 교차적으로 불리는 특징이 있다. 후렴을 한 번 부르고 나서 사설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사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질군악, 너녕나녕, 사랑가, 중타령 등은 후렴을 먼저 부른 후 사설을 부르기 시작하고, 신목사타령, 계화타령, 동풍가, 봉지가, 오돌또기, 이야홍, 산천초목, 용천점 등은 사설부터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민요의 가창방식이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소리꾼의 성향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또, 노동요의 후렴들이 대체로 무의미 후렴인 데 비해 가창유희요인 신목사타령, 동풍가, 사랑가, 오돌또기, 사랑가, 용천점, 산천초목, 너녕나녕, 이야홍, 중타령 등의 후렴들은 대체로 의미가 있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소리꾼에 의해 불리면서 다듬어진 가창유희요는 노동요에 비해 기교가 발달하고 선율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주 가창유희요는 육지에 비해 기교가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며, 선율 처리방식과 가창 기교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육지의 가창유희요들이 대개 악기를 수반하여 전문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불리는 것과는 달리, 제주의 가창유희요가 허벅을 이용하여 즉흥적으로 장단을 맞추며 불리는 모습과도 상통한다. 제주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즐길 여유는 없었으나,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일하는 도중 비라도 내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는 소리꾼이 형성되어 왔다. 소리꾼도 즉흥적으로 형성되고 장단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상생활의 도구가 가창유희요의 연행시에도 활용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오늘날의 가창유희요

민요는 노래가 불리는 놀이판이나 소리판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집단 공동체의 상황, 역사·문화공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노인 복지회관이나 마을의 경로당에는 아직도 옛노래들이 살아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해마다 정초에 어른들을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에 모시고 공동세배를 올리는 풍습이 있고, 일 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나 추석 즈음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어른들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부녀회와 청년회 중심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행사를 마련하며 마을의 걸궁패가 와서 축하연을 배푼다. 이때 어른들은 젊은이들로부터 음식과 선물을 받고 젊은이들과 어울려 하루종일 즐겁게 논다. 어른들을 흥겹게 하는 자리에서는 으레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자료집에 조사·정리된 신민요들은 다음과 같다.

<표2> 제주지역 신민요의 분포

| 종류 | 분포지역 |
|--------|------------------------|
| 영주십경가 | 제주, 구좌 |
| 아리랑 | 남원, 표선, 구좌 |
| 아리시리딩딩 | 표선 |
| 한강수타령 | 구좌 |
| 양산도 | 구좌, 남원, 대정, 성산 |
| 창부타령 | 제주, 구좌, 남원, 대정, 성산, 안덕 |
| 청춘가 | 남원, 대정, 구좌, 성산 |
| 잡가 | 대정 |
| 뱃노래 | 대정 |
| 장구타령 | 제주 |
| 박연폭포 | 제주 |
| 큰애기풀이 | 대정 |
| 베틀가 | 대정 |

가장 너른 분포를 보이는 노래는 창부타령, 양산도, 청춘가 등 경기민요이다. 대체로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곧잘 이런 노래를 부르며, 80세 이상

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민요를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사지로 선정된 마을만의 특성이 아니라 실제 현장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노인들의 소리판에서 우선적으로 불리는 노래는 단연 오돌또기와 서우젯소리이고, 소리판이 무르익기 시작하면 슬슬 창부타령, 아리랑이 등장하며, 점차 양산도, 청춘가, 뱃노래 같은 신민요들이 이어서 등장한다. 창부타령, 양산도, 청춘가, 방아타령, 노랫가락, 이별가 등 근래 들어 제주지역에서 폭넓은 향유층을 갖고 있는 노래는 경서도 민요들이다. 최근에는 국판에서조차 창부타령 가락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오래 전부터 제주지역 가창유희요가 육지의 타령계 민요 중에서도 특히 경서도 민요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친연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제주지역 가창유희요는 경서도 민요와 밀접한 영향관계를 보임으로써 육자배기로 된 전라도 민요, 메나리조로 된 경상도나 강원도 민요의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민요목이 경서도민요목과 비슷한 데서 오는 때문¹⁷⁾으로 보고 있다. 신목사타령, 계화타령,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경서도 민요의 유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이 근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서도민요의 급속한 전파에는 전문 소리꾼들의 활동과 교류가 한몫하고 있다.

오늘날 제주 가창유희요의 전승기반으로 전문소리꾼들의 활동은 제주 민요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이다. 전문소리꾼들은 민요패 소리왓, 제주민요단, 탐라예술단, 백록민속예술단 등 국악단체를 만들어 민요의 보급과 전승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민요경창대회나 각종 대회 출연 등을 통하여 육지의 다른 예술단들과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각종 예술제와 축제에 출연하여 기량을 선보이거나 노인대학·문화원·교육문화센터·학교 등지에서 민요 및 풍물교실 강사로 활동하면서 민요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또한 방송출연과 테이프·CD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전문소리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제주민요의

17) 나운영, 「제주도 민요의 작곡학적 연구(1)」, 『연세논총』 제9집, 연세대, 1972.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소리꾼들이 점차 유명을 달리하면서 요즘 소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테이프를 통하여 노래를 배우고 있다. 무대화에 알맞게 기량을 연마하고 타지방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타지방 민요의 가창법이 끼어들거나 제주어가 사라져버림으로써 제주민요의 신선함과 토속성을 떨어뜨릴 염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가창유희요뿐만 아니라 제주민요 전반의 총체적 문제이기도 하다.

국악단을 비롯하여 전문소리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 10곳을 노래하는 '영주십경가'가 다채롭게 불리고 있어 주목된다.

아~ 아~양 어허~양 어허요
여기는 여기는 제주나운데

아~ 아~양 어허~양 어허요
성산포 일출봉에는 해뜨는 구경도 마냥도 좋다
사라봉 뒷산에는 해지는 구경도 좋고야 좋다

아~ 아~양 어허~양 어허요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 명승지로다

아~ 아~양 어허~양 어허요
산지포 저 돛대 위에 갈매기만 놀고야 날고
고수에 저 물덜은 사랑만도 짜고야 논다

아~ 아~양 어허~양 어허요
방선문 저 곳들에는 선녀만도 놀건도마는
곤돌 굴림속에는 원님 사또만 노시는구나

아~ 아~양 어허~양 어허요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 명승지로다

아~ 아~양 어허~양 어허요
정방수 저 폭포에는 장단만도 치건도마는
영실에 저 기암은 찬비만 불르는구나

아~ 아~양 어허~양 어허요
산방산 저 앞바당은 망망도 허건도마는
녹담에 저 찬서리 경치만 좋고야 좋다

아~ 아~양 어허~양 어허요
 사시절 명승지로다 한라산이 명승지로다
 아~ 아~양 어허~양 어허요

(2005. 1. 7. 양영자 채록. 서귀포시 효돈동 고영화(여·65세)소리)

영주십경은 조선 순조 임금 때 매계(梅溪)(李漢雨 또는 漢震) 선생이 우주만물이 생겨나서 변화되는 심오한 원리에 맞춰 이름까지 짜 맞추어 제주의 십경 차례를 매겼다고 하는데¹⁸⁾, 이를 노래한 영주십경가는 비교적 근대에 지어진 민요로 보인다. 서우젯소리의 가락에 성산일출(成山日出), 사봉낙조(紗峰落照), 영구춘화(瀛邱春花), 정방하폭(正房夏瀑), 굴림추색(橋林秋色), 녹담만설(鹿潭滿雪), 영실기암(瀛室奇巖), 산방굴사(山房窟寺), 산포조어(山浦釣漁), 고수목마(古藪牧馬) 등 제주의 명승지를 소개하는 사설을 엮어 부른다. 창자에 따라 후렴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제주시의 일부 전문적인 창자에 의해 불리던 노래가 지금은 전문소리꾼들의 국악단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V. 맺음말

제주 가창유희요는 제주사람들의 사회적 공감대에 의해 형성되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담으면서 독특하게 전승되어 왔다. 제주지역 가창유희요들 중에 육지의 민요가 유입된 민요들도 제주의 인문·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제주의 현실과 실정에 맞게 변용되면서 제주다운 모습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육지에서 사라져버린 민요도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어 다른 지역의 민요와의 비교·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가창유희요가 노동요와 혼재되어 문화재로 지정되

18) 오문복, 『영주십경』, 제주문화, 2004.

는가 하면 각종 조사보고서에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거나 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의 민요만을 대상으로 채록·채보함으로써 제주지역 가창유희요의 총체적 모습을 들여다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1970년대 이후 민요의 악보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방송사의 음반작업이 이루어져 제주민요는 조금씩 총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무형문화재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민요자료집이나 음반을 내는 사례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국제화·세계화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 차원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요제보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지면서 활발한 민요의 전승과 보존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소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소리를 익히게 됨에 따라 소리마다 배어있는 인간적인 향기와 맛깔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소리판의 기계화와 무대화, 상업화에 따라 획일적인 사설과 가락만이 난무한다면 제주민요의 온전한 모습을 보존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 행정가, 소리꾼이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연구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가창유희요, 제주목, 정회현, 대정현, 관변지역, 오돌또기, 이야 흥, 너영나영, 동풍가, 산천초목, 신목사타령, 영주십경가.

<참고문헌>

◦ 자료집

김영삼, 『제주도민요집』, 중앙문화사, 1958.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존리비, 「제주도민요컬렉션」, 스코틀랜드학연구소, 1964.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일조각, 1965.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농악·풍어제·민요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2.
- 『한국의 민속음악: 제주도민요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한국구비문학대계 9-1, 9-2,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981, 1983.
- 이소라, 『한국의 농요』 제1집, 제2집, 현암사, 1985, 1986
- 『제주도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주도, 1986.
- 『제주도부락지』 I ~ IV,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91.
- 『국문학보』 제11집~15집, 제주대 국문학과, 1992, 1994, 1995, 1997, 2001.
- 『백록어문』 8집~17집, 제주대 국어교육과, 1991~2001.
- 『한국민요대전: 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2.
- 『우리고장 전래민요』, 남제주군, 1996.
- 『제주의 향토민요』, 제주시, 2000.
-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 북제주군, 2001.
- 임석재 편저, 『한국구연민요 자료편』, 집문당, 1997.
-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 민속원, 2004.
- 논저
- 강동학,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 김영돈·현용준, 『제주도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주도, 1986.
- 김영돈,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1989.
- _____, 『제주민요의 이해』, 제주도, 2000.
- 나운영, 『제주도 민요의 작곡학적 연구(1)』, 『연세논총』 제9집, 연세대, 1972.
- 성경린·장사훈, 『조선의 민요』, 국제음악문화사, 1949.
- 손인애, 『향토민요 매화타령 연구』, 한국민요학회 제16차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6.
- 오문복, 『영주십경』, 제주문화, 2004.
- 조영배, 『제주도 민속음악(통속민요편)』, 신아문화사, 1991.

진성기, 『남국의 민요』, 제주민속연구소, 1958.

_____,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1959.

한기홍, 「조천민요의 특이성」, 『민요론집』제3호,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4.

<Abstract>

The study on singing-playing song in Jeju

Yang Young-ja

This dissertation is about the singing-playing song in Jeju. I researched on the background of formation, type, and the aspect of transmission.

There aren't many examples of the songs when we compare to songs of labor, in consequence of they make an exception of folksongs in Jeju. In addition to, researches on the songs of labor are in the progress in terms of literary and folkloristic, musically aspect, however, in case of the songs of amusement are insufficient now.

The songs of amusement in Jeju, in proportion to a musical piece, lay stress on a region of distribution greatly. On the whole, we are aware of that the place where is a government office of 'Jejumok' in Jejushi, and the place where is the seat of a provincial government of 'Jeongeuihyun' that is situated Seongeup in Pyosunmeon, moreover, the place that is a government office of 'Daejunghyun' in Boseong and Jochungwan, where had a lot of interchange of human and material with the land. Among the singing-playing song in Jeju, Odolttogi, Iyahong, and Neoyoungnayoung are distributed equally all parts of Jeju(included Jejushi), while Dongpoongga, Sanchunchomok, and Shinmoksataryoung are handed down with local area as the central figure, especially, there are several the singing-playing song that handed down only in Seongeup.

Narrations that have the songs of amusement are related to love of men and women, some picturesque places in Jeju and amusements.

The singing-playing song in Jeju was formed by social responses of people in Jeju, and handed down originally with reflect the natural surroundings of Jeju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s of Jeju.

If the places of (folk) songs are rampant as mechanization, the arena of songs, and commercialization, we're not going to keep the songs intact. Because they have standardized rhythm and telling

As a result, we will research for restoration of the songs steadily more serious attitude, included researchers, executive officials, and folksong singers.

- Keywords: the singing-playing song, Jejumok, Jeongeuihyun, Daejunghyun, Odolttogi, Iyahong, Neoyoungnayoung, Dongpoongga, Sanchunchomok, Shinmoksatoryoung, Seongeup.